문체부, 선학원 총림선원 부지 매각 "위법"

해당토지 실사 결과 '전통사찰보존지' 확인

"명백한 절차상하자"드러나
전통사찰법 위반 행위 관련
"법에 따른 법적대응 검토"

재단법인 선학원이 주장한
"문체부 장관 허가받았다"
허위주장으로 확인돼 파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 부지를 일방적으로 진주시에 매각한 사건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선학원이 해당부지를 문체부 장관 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전통사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선학원은 해당 부지에 대해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고 문체부 허가도 받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문체부의 공식입장에 따라 모두 거짓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선학원에 대한 법적처벌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최근 진주시와 경상남도에 '경남 진주시 총림선원 전통사찰보존지 해당여부 관련 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조사 결과 진주시 망경동 산 18-1번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는 검토의견을 고지했다.

총림선원이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공문에서 진주시와 선학원간 토지 양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판단한 결과, "선학원이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것은 전통사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전통사찰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사찰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망경동 산18-1번지는 진주시가 추진 중인 망경공원 조성사업의 공용수용 예정부지로, 등기상 소유권자인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을 배제한 채 진주시에 일방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절차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등의 하자가 드러나면서, 현재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선학원측이 "해당 부지는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 여부가 절차상 하자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체부는 7월 25일 진주 총림선원 부지인 망경동 산 18-1번지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총림선원과 소속 종단인 재단법인 선학원 간 전통사찰보존지 여부에 이견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문체부와 경남도청, 진주시 관계자들이 현장조사에 공동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 해당부지는 사찰과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임야)로, 사찰로 통하는 문이 산책로를통해 해당 토지와 이어지는 등 총림선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로 확인됐다. 이에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돼 있는 토지 혹은 이와 연결된 부속 토지, 참배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될 뿐 아니라 사찰보다 높이 위치하고 있어 그 활용에 따라 사찰의 풍치 보존에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됐다.

특히 문체부는 "종단 명의의 토지도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존구역 지정과 보존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봤다. 전통사찰보존지 여부 판단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관계보다 실질적인 점유 관계를 봐야하며, 전통사찰법 제9조는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종단 소유 토지도 해당된다는 결론이다.

해당 부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확인됨에 따라,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진행된 진주시와 선학원 간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절차상 하자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특히 문체부가 '선학원의 전통사찰법 제9조를 위반해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와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물리적 충돌시 목숨 걸고 지키겠다"

태고종, 8월 30일 선암사수호대책회의서 결의

원로의원 등 중진 70여 명 참석
비상연락 구축 · 경찰 협조 등
수호기금 마련 불사 봉행도 확정



태고총림 선암사 수호대책회의가 8월 30일 경내 적묵당에서 원로의원, 총무원, 종회의원, 선관위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수호대책회의에 모인 대중들은 철저한 소송준비와 함께 기타상황 발생시 종단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태고종이 종단 차원에서 개최한 이날 회의는 7월 7일 고등법원 본안 소송과 7월 20일 전통차체험관 파기환송심에서 선암사가 승소한 것과 관련하여 조계종 측이 다시 대법에 상고한데 대응하는 자리였다.

수호대책회의에서는 조계종 측 일부가 "물리적 행사"를 언급한 것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대책회의서는 △문도별 비상연락망 확충 △경찰서, 시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결의대회 개최 및 종단 행사시 결의문 낭독 △수호기금 마련위한 대웅전 개금불사 봉행과 각 사찰 권선 등의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등 후속 재판에도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수호대책회의 참가 스님들은 "태고법손들은 선암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결의를 표명키도 했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다짐했던 수호결의는 변함이 없다. 선암사 수호를 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확정된 내용을 정리해 오늘부터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격려사에서 "코로나 시국에도 선암사에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 선암사 소임자 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암사가 단 한번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끝까지 지켜 후대에도 태고종 선암사로 남기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 선암사 원로의장 남파 스님은 "1960년대부터 여러 번 조계종 스님들이 선암사에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 모두 함께 수호하자는 마음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십시일반 대웅전 개금불사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13명 전원 서류 통과

10월 13일 예정된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선거를 앞두고 전국비구니회가 내부 선거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입후보자 13명 전원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는 9월 2일 제 2차 입후보자 자격심사회의를 열고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8월 22~24일 진행된 후보자 등록접수에는 교학 · 수행, 행정 분야에 각각 2명, 포교, 복지, 사회 · 문화 분야에 각각 3명이 접수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관례적으로 비구니 종회의원 10석에 대해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5개 분야에서 각 2명의 종회의원을 뽑는 선출 방식에 따라 교학 · 수행 입후보자 진상 스님과 철우 스님, 행정 분야 입후보자 법해 스님과 설해 스님은 무투표로 후보당선이 확정됐다. 3명씩 입후보한 포교, 복지, 사회 · 문화 분야 후보에 대해서는 9월 15일 오후 1시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열리는 제32차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 취임

9월 2일 조계사 대웅전서 취임법회 봉행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어서
"민생 안정 · 문화 강국 최선" 당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이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취임했다. 대통령실 불자회는 이전 정부까지 청와대 불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9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진복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수장들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대통령실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은 부처님 전에 헌화한데 이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마치 부처님 말씀처럼 노력을 통한 공덕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 불자회장은 "대불회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공덕의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불교계 현안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급격한 변화의 여정에서 국민들은 든든한 의지처인 정부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 불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히 국가와 민족과 함께하며 호국과 전통문화 정수를 지켜온 불교 가르침을 국정에 반영해 민생안정과 세계 문화강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각계 축사도 이어졌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여러 신행단체 중에서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 내 단체인만큼 대한민국의 안정과 불교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 나라가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불교공약을 주관했고 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정각회장 소임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대통령실 불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전통문화 보존와 국민 화합을 위한 여러 불교공약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홍수 대참사' 파키스탄에 2억원

원행 스님, 9월 1일 대사에 전달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2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2억 원을 전달하고 대홍수로 피해를 입고 있고 있는 파키스탄 국민들을 위로했다.

나빌 무니르 주한대사는 이 자리에서 파키스탄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사에 의하면 국토의 1/3이 물에 잠긴 이번 홍수로 1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재민 수는 3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아직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많은 주택과 다리가 부서졌으며 파괴된 도로도 3500km에 달한다.

나빌 무니르 주한대사는 "이번 대홍수는 몬순우기에 기후온난화 영향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이상 기후 현상"이라며 "파키스탄은 탄수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0.1%가 채 되지 않는 국가임에도,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불자들의 자비로운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출신 마라난타 스님은 1700년 전 한국에 불교를 전해준 은인"이라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화답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